

# 제105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26. 1. 8.(목) 15:00

2. 장 소 : 을곡관 제1회의실

3. 참 석 : 위원 총 14명 중 10명 참석

- 참석위원 : 이재호 의장, 노재성 부의장, 강원구 평의원, 김주용 평의원, 김태균 평의원, 노승중 평의원, 백연정 평의원, 오나영 평의원, 윤창빈 평의원, 호정화 평의원
- 불참위원 : 김흥환 평의원, 박상현 평의원, 송재원 평의원, 허준석 평의원
- 배석 : [본교] 기획처장, 예산팀장, 예산팀 최슬기, 김경묵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기획팀장, 기획팀 김형욱

## 4. 의 안

### ○ 보고사항

- 대학평의원회 구성 변경
-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사전 보고

### ○ 심의사항

-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 ○ 자문사항

- 부속병원회계 2025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학년도 본예산(안)
- 교비회계 2025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학년도 본예산(안)

## 5. 주요 회의 결과

### 가. 보고사항

- 기획팀장이 조교대표 평의원, 학생대표 평의원 변경을 보고하다.
- 기획팀장이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사전 보고하고, 의원들은 2025-제2차 임시교무회의 심의 이후 서면결의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다.

<간서명 란>

의 장

2/24

- 제4조(기구) 별표1 : SW융합교육원 명칭 변경(SW융합교육원→AI융합교육원)
- 제9조(대학 및 특수학부) 및 제54조(학사과정의 학위수여) 별표5 : 첨단바이오융합대학 전공 신설(디지털바이오공학) 및 데이터보안 혁신융합사업 관련 연계전공 변경
- 제43조(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및 트랙) 제4항: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속 재학생의 인공지능융합전공 이수 제한 규정 정비
- 제53조(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제1항: 특수대학원 학위기에 복수전공, 부전공, 트랙 표시 근거 마련
- 제53조(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제3항: 특수대학원 동일학과 내 2개 종류 이상의 학위 수여에 대한 현행 운영 사항 반영

## 나. 심의사항

### ○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 기획팀장이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설명하다.
-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다.

- 제4조(기구) 및 제11조(의료원) 별표1(기구): 전문화연구기관 신설(인공지능연구원) 및 의료원 연구기관 폐지(외상연구소, 인체유전체지원센터,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
- 제8조(대학원) 및 제53조(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별표2(일반대학원): 한국뇌연구원 학연산협 동과정 신설 및 학과명 변경(응용사회학과→사회학과)
- 제8조(대학원) 및 제53조(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별표4(특수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전공 신설(인공지능·CAISR(국방ICT융합)) 및 전공명 변경
- 제21조(학생정원) 별표6 내지 별표8: 2026학년도 대학원(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정원 반영
- 제44조(교육과정) 제8항: 국내 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근거 마련
- 제50조(학사과정의 졸업요건) 제3항: GPA 백분위 계산식 변경에 따른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졸업요건 변경

## 다. 자문사항

### ○ 부속병원회계 2025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학년도 본예산(안)

#### 1) 보고사항

- 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이 2025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학년도 본예산(안)을 설명하다.
-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 : ▲의료수입 목표 상향 및 지출예산 증가에 따른 재조정 ▲임금협상, 통상임금 확대 등의 인건비 반영 및 관리비 조정 ▲2025학년도 예산 집행 사업결과에 따른 예산 재조정 ▲의료외수입 및 지출 조정 등(국고 및 연구비 등)
- 본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 : ▲외래, 입원 등 각 부문별 실적 증대 목표 반영 ▲연속사업(파워플랜트 증축) 및 노후 시설보수 반영 ▲필수 의료기기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 전산시스템 개선 반영 ▲필수 관리비 외 기타 복리후생 및 소모성 비용 정규 편성

#### 2) 자문사항

- 이재호 의장은 응급헬기착륙장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은 외상센터와 협의하며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임을 설명하다. 이재호 의장은 테니스장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본교의 경우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큰 사안인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다.
- 이재호 의장은 본예산의 다소 공격적인 편성에 대한 근거를 질의하다. 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외래 진료 실적 추이, 전공의 복귀 상황, 진료 편의 프로세스 도입 및 각 임상과의 진료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설명하다.
- 노재성 부의장은 전임교원의 경우 통상임금 인상에 따른 실질적인 인상 효과가 없으며, 전공의 복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전임교원이 여전히 당직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다. 이에 따라 이러한 업무 부담에 상응하는 임금 및 수당 인상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다. 아울러 교원에 대한 합당한 처우가 이루어져야 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 인력이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음을 강조하다.
- 노재성 부의장은 본교 의료원이 이러한 비약적인 발전에 대해 언급하다. 이에 김태균 평의원도 의료원이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며, 학교와의 시

<간서명 란>

의 장

이재호

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해당 성과가 아주대학교 전체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다.

○ 교비회계 2025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학년도 본예산(안)

1) 보고사항

- 기획처장이 2025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학년도 본예산(안)을 설명하다.
-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 : ▲등록금수입 미실현액 조정 ▲전입금수입, 국고수입, 교육부대수입 등 변경 반영 ▲기금인출사업 변경 반영 ▲2025학년도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예산 반영
- 본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 :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학부 등록금 인상 추진 및 대학 발전전략 수행 ▲AU50첨단융복합관, AIMS3 등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편성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정착 지원, 국제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광역 모집단위(자유전공학부, ai Lab), 첨단학과 정착을 위한 교내자원 지원 ▲대학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부금, 임대수입, 위탁교육, 평생교육 등 수입원 다각화

2) 자문사항

- 김태균 평의원은 인조잔디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방학 기간이 아닌 9~10월에 공사가 진행된 사유를 질의하다. 이에 예산팀장은 학교의 모든 계약은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 설계 과정에서 수원시와의 협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었고, 이후 실시한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공사 일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음을 설명하다.
- 강원구 평의원은 정문 앞 수위실 환경이 장기간 개선되지 않고 있어 2026학년도 주요 개선 시설 사업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향후 추진 경과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다. 이에 기획처장은 학교 정문 일대 전반을 개선하는 사업을 검토 중인 관계로 수위실 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시설팀을 통해 현황을 확인한 후 진행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답변하다.
- 이재호 의장은 생성형 AI 구독권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AI 활용에 대한 학교 차원의 준비 및 추진 현황을 질의하다. 이에 기획처장은 AI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AI 활용 방안 및 교수·학습 활용 가이드라인을 학교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수업계획서에 AI 활용방안 명시 및 현장 성격의 자료 배포 등을

<간서명 란>

의 장

이/영/진

통해 교육·연구·행정 전반에 걸쳐 AI 활용을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다.

- 이재호 의장은 2025년 연말에 시행한 교원 대상 교수회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최근 2년간 타 대학의 영입 제안 경험 비율과 최근 1년간 이직을 고려한 교원 비율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설명하다. 또한 이직 시 주요 고려 요인으로 급여와 연구 활동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교직원 임금 인상이 물가상승률의 약 3분의 1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임금 감소로 해석될 수 있다고 언급하다. 이러한 상황은 대학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정책적 우선순위 설정 과정에서 교직원 처우 개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다. 아울러 등록금 인상이 학생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도 중요하나 우수 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학생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 시점이 법인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의견을 개진하다.
- 김태균 평의원은 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금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총장 및 대학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현재까지 기부금 유치 성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다. 이에 기획처장은 총장과 대학발전본부를 중심으로 기부자와의 장기적 관계 형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다. 이어 강원구 평의원은 기부금 유치는 총장과 동문, 구성원이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임을 언급하며, 전반적인 노력은 인지하고 있으나 예년과 비교할 때 가시적인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다.
- 윤창빈 평의원은 등록금 인상 관련하여 차년도 본예산 편성 일정이 10월부터 진행되었음에도 총학생회와 충분한 사전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다. 이에 기획처장은 본예산 편성일정이 10월부터 시작되는 것은 각 부서의 차년도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 요청 및 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일정 특성상 총학생회 선거 이후 12월에 위원이 구성되어 12월~1월에 본격적인 회의가 진행되므로 총학생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설명하다. 이에 대해 김태균 평의원은 본예산 편성 일정의 특성상 수요 조사와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사립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가 학생 지원을 위한 재원 투입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호 의장은 학생들이 소통 부족을 느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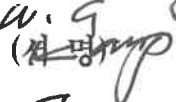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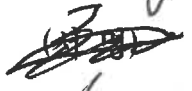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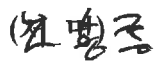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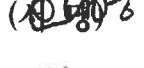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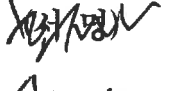
<간서명 란>

의 장

이재호

않도록 대학본부가 학생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기획처장은 이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답변하다.

2026. 1. 8.  
아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 장	이재호	
부의장	노재성	<del>노재성</del> 
평의원	강원구	W. G.  (재평의)
평의원	김주용	<del>김주용</del> 
평의원	김태균	
평의원	노승중	(재평의) 
평의원	백연정	(재평의) 
평의원	오나영	(재평의) 
평의원	윤창빈	(재평의) 
평의원	호정화	(재평의) 
간 사	심재섭	